



홍명보 감독

# 막아라 ‘역습’... 뚫어라 ‘측면’

## 한국-러시아전 관전포인트

‘역습을 막아야 승점이 보인다’

홍명보호가 마침내 사상 첫 원정 월드컵 8강 진출의 성패를 가능할 러시아와의 2014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H조 1차전(한국시간 18일 오전 7시·쿠이아바 판타나우 경기장)에 나선다.

러시아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9위의 강호로 탄탄한 중원의 조직력을 바탕으로 빠른 역습에 능한 팀이다. 이 때문에 홍명보호는 미국 마이애미 전지훈련부터 역습 차단과 측면 돌파로 러시아를 격파한다는 전술을 앞세워 담금질을 해왔다.

한국과 러시아는 H조 최강호로 꼽히는 벨기에(FIFA 랭킹 11위)에 이어 조 2위로 조별리그 통과를 노리고 있다. 이번 조별리그 1차전 결과는 두 팀의 목표를 사실상 결정하는 중요한 일정으로 손꼽힌다. 한국과 러시아의 운명을 결정할 이번 맞대결의 관전 포인트를 살펴본다.

### ◇ 필승 해법 ‘역습 차단-측면 공략’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은 러시아 공략의 해법으로 측면 공략을 선언했다. 4-3-3 전술을 가동하는 러시아는 미드필더진의 끈끈한 조직력을 앞세워 상대의 공격을 중원에서 끊은 뒤 빠른 역습으로 수비진을 무력화해 득점하는 데 능숙하다. 러시아의 ‘명장’ 파비오 카펠로(이탈리아) 감독은 ‘실점이 없으면 패배도 없다’는 축구 철학을 앞세워 강한 수비진을 바탕으로 역습을 노리는 색깔을 유지하고 있다. 2012년 11월 미국과의 평가전에서 2-2로 비긴 이후 A매치 14경기에서 한 경기당 2골 이상을 내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14경기에서 9골만 허용해 평균 실점이 0.64골에 불과한 ‘잔물 수비’가 일품이다.

이 때문에 홍명보 감독은 러시아 격파를 위한 우선 과제로 역습 차단에 전력을 쏟고 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은 공격 루트의 변화로 이어졌다.

대표팀은 마이애미 전지훈련부터 무리한 중앙 돌파를 자제하고 측면의 기동력을 활용한 공략법을 중점적으로 가다듬었다.

4-2-3-1의 전술을 가동하는 홍명보호로서는 중원 대결에서 러시아에 우위를 차지하기 어려운 만큼 중앙을 공략하다가 역습을 당하

### 러시아 득점 루트 차단... 측면 집중 공략으로 승부

### 박주영-코코린 골잡이 맞대결 관심... 세트피스 골 기대

는 상황을 피하고자 철저하게 측면 공략에 집중한다는 작전이다.

특히 손흥민(레버쿠젠)과 이청용(볼턴)이 빠르고 발재간이 뛰어나 좌우 풀백의 과감한 오버래핑과 조화를 이루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다. 여기에 최전방에서 박주영(아스널)과 구자철(마인츠)이 발이 느린 러시아 중앙 수비진의 뒷공간을 공략하면 득점 기회도 많이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측면 공격이 원활하려면 중원에서 정확하고 빠른 볼배급이 이어져야 하는 만큼 ‘패스의 시발점’ 역할을 맡은 기성용(스완지시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 ◇ ‘세트피스의 힘’ 이번에도 발휘할까

한국 축구가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뽑아낸 득점은 총 28골이다. 이 가운데 세트피스에서 만들어진 골은 총 11골이다. 역대 득점의 39%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나올 만큼 큰 부분을 차지한다.

한국은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허정무 현 축구협회 부회장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골을 넣은 것을 시작으로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회까지 7회 대회 연속으로 세트피스 상황에서 골 맛(총 11골)을 봤다. 홍명보호 역시 이번 브라질 대회에서 8회 연속 세트피스 득점을 노리고 있다.

홍명보호는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마이애미 전지훈련과 브라질 이구아수 캠프에서 두 차례나 훈련장 문을 걸어잠그고 비공개 훈련에 나섰다.

이때 집중적으로 연마한 것이 세트피스 훈련이었다. 특히 다양한 방식의 코너킥을 통해 상대방 골문을 여는 데 신경을 많이 썼다.

공교롭게도 한국의 역대 세트피스 득점에서 코너킥에 의한 것은 단 한 차례도 없었던 만큼 이번 월드컵에서 코너킥을 통해 득점하면 ‘역대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게 된다.

/연합뉴스



파비오 카펠로 러 감독



“첫 승은 우리 것” 지난 13일 오후(현지시간) 브라질 이구아수의 페드로 바소 경기장에서 훈련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왼쪽)과 상파울루 인근 도시 이투의 노벨리 주니오르 스타디움에서 지난 14일 오전 훈련하는 러시아 축구 대표팀.



지난 14일 오전 훈련하는 러시아 축구 대표팀. /연합뉴스

## “16강, 승점 4점이 필요해”

### 최소 1승1무는 거둬야

사상 최초로 ‘원정 8강’을 노리는 한국 축구 대표팀의 2014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가 이를 앞둔 다가왔다. 한국은 18일 오전 7시(한국시간) 브라질 쿠이아바의 판타나우 경기장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H조 1차전을 치른다.

1998년 프랑스 대회부터 2002년 한일월드컵, 2006년 독일과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회의 조별리그 성적을 분석해본 결과 16강에 진출하려면 최소한 승점 4를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승점 4는 1승1무1패를 의미한다. 하지만 승점 4를 뺏고 해서 무조건 16강에 나간 것은 아니었다. 최근 네 차례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승점 4를 기록한 경우는 총 23번이 나왔는데 가운데 16강에 오른 것이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11번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즉 승점 4를 얻은 팀은 같은 조에 속한 다른 나라의 성적에 따라 16강 진출 여부가 갈린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는 승점 4를 얻고도

조별리그에서 탈락했고, 2010년 남아공 대회에서는 같은 성적으로 16강에 안착했다. 2010년 대회에서는 1차전에서 ‘무적함대’ 스페인을 1-0으로 물리치며 기세를 올린 스위스가 결국 1승1무1패, 승점 4로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승점 5의 경우 15차례가 있었는데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모두 16강에 올랐다. 심지어 승점 5로 조 1위를 차지한 경우도 네 번이나 됐다.

승점 3으로 16강에 오른 것은 딱 한 번 있었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칠레는 3무승부를 하고 조 2위를 차지했다. 당시 칠레가 속한 B조에서는 이탈리아가 2승1무로 조 1위에 올랐고 오스트리아와 카메룬은 나란히 2무1패에 그쳐 칠레가 승점 3으로 조 2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결국 홍명보호가 16강에 안정적으로 나가려면 러시아전 승리가 필요한 셈이다. 러시아를 잡을 경우 남은 두 경기에서 1승1패 또는 2무승부를 거두면 16강에 올라갈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팀미를 잡거나 비기는데 그치면 일제리, 벨기에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연합뉴스

## ‘붉은악마’가 간다

### 원정 응원단 브라질 출국

한국 축구의 또 다른 아이콘인 대표팀 서포터 ‘붉은악마’가 러시아 격파에 힘을 보탠다. 붉은악마 원정 응원단 120여명은 15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미국 디트로이트를 거쳐 브라질 상파울루, 쿠이아바까지 지구 반바퀴를 도는 대장정이다.

붉은악마는 16일 저녁 상파울루에 도착한 뒤 곧바로 쿠이아바로 향한다. 쿠이아바로 도착하는 시간은 17일 오전 2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부터 붉은악마는 러시아전이 열리는 18일 오전 7시까지 약 30시간 동안 태극전사들의 힘을 돋우기 위한 응원 준비를 하게 된다.

이번에 원정 응원을 펼치는 120명은 붉은악마의 ‘대표 선수’라고 할 만하다. 47개 소모임 회원 가운데 가장 열성적으로 활동해온 인원만 추려 정에 멤버를 꾸렸다. /연합뉴스

### 오후 4시에도 30도... 러시아엔 곤혹

쿠이아바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원정 8강 신화에 도전하는 첫 번째 장소다. 한국은 18일 오전 7시(이하 한국시간) 쿠이아바의 아레나 판타나우에서 러시아와 본선 조별리그 H조 1차전을 치른다.

쿠이아바는 브라질 중서부에 있는 마투그로수 주의 주도다. 남아메리카 대륙의 정중앙에 있어 ‘남미의 심장’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열대 지역 특유의 더위 때문에 대표팀이 중요한 일전을 앞두고 컨디션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15일 러시아전이 열리는 시각 기온은 25도 안팎에 불과했다. 이곳 시각으로 오후 4시 쯤에는 30도에 육박했지만 불과 2시간 동안 5도나 떨어졌다.

내륙 지방이어서 건조하기 때문에 일교차가 큰 것으로 보인다. 햇볕이 강한 한낮에도 그늘에 있으면 시원하다고 느껴질 정도다.

## 쿠이아바 더운 날씨는 한국편

이날 오전 이곳에 도착해 태극전사 맞이에 한창인 전한진 대한축구협회 국제팀장은 “추운 나라에서 온 러시아에게는 부담스럽겠지만 무더위에 익숙한 한국 입장에서는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될 정도의 기온인 것 같다”며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다.

전 팀장은 1998 프랑스 월드컵 때부터 대표팀의 모든 월드컵 경기를 준비한 ‘배테랑’이다. 그는 “지금껏 월드컵 경기를 치른 곳 중에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과 기후가 가장 비슷하다”고 말했다.

더반은 2014 남아공 월드컵 때 한국의 조별리그 3차전이 열린 곳이다. 당시 한국은 나이지리아와 2-2 무승부를 거두고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아레나 판타나우는 월드컵 본선을 위해 공사비용 5억2000만 헤알(약 2300억원)에 신축된 경기장으로 관중 4만29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다.

쓰레기 재활용으로 생산한 자재로 건립돼 친환경적이라는 의미에서 ‘빅 그린’(O Verdão·The Big Green)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연합뉴스